

##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편입 하기

커뮤니티 칼리지(CC)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편입을 할 수 있을까?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상위권 대학들은 불우한 환경을 딛고 jump Up하려는 학생들을 좋아한다. CC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얼마든지 편입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부분 4년제 대학들은 다양한 학생들을 입학시키려고 노력한다. 즉 대학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가운데 하나는 다양성이다. 그들은 모든 인종, 종교, 국적의 학생들을 사회경제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이길 원한다. 4년제 대학들이 CC 학생들을 편입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양성 확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대학들은 고등학교에서 곧바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들의 자료가 대학들의 입시 통계를 통해 랭킹을 매기는 데 반영이 된다. 그러나 편입의 경우 이 랭킹 자료에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은 다양성 확보를 위해 CC에서 과감하게 다양한 학생들을 받아들인다. 상위권 대학들은 불우한 환경의 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의 편입을 환영한다. CC에서 편입하는 학생들의 경우 재향군인이나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많다.

### ■ CC에서 상위권 대학 편입을 하려면

#### 1) CC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비록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성적이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CC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보여야 한다. 물론 고등학교 성적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퇴역군인으로 군 복무를 한 경우라면 오랜 시간 이 흐른 고등학교 성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 2) 하나님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라

많은 편입생들이 스포츠, 음악, 지역



봉사 등과 같은 많은 것들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려고 할 때 그들과는 다르게 변화를 이끄는 사람 등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특히 적성보다 나눔, 배려 등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 3) 교수로부터 강력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편입에서 교수의 추천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냥 교수를 찾아가서 구두로 요청하기보다. 자신의 Background 등에 대해 교수에게 Resume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교수로부터 감동의 추천서를 받으면 좋다.

#### 4) 꼭 가고 싶은 대학을 편입대학으로 꼽아라

어떤 학생들은 최상위 대학만을 편입 할 대학 리스트에 올린다. 그러나 이는 허영이다. 아이비리그 대학처럼 최상위권 대학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이 갈 수 있는 대학을 골라야 한다.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은 분명 다르다.

#### 5) 편입 에세이를 정말 잘 써야 한다

대학들은 편입 에세이로 Why 에세이를 요구한다. 에세이에는 자기만의 색깔과 목소리를 담아 편입해서 가는 대학에 어떻게 기여하고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이고 감동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사진=shutterstock

## 전공이 당락을 결정한다

대학입시에서 같은 학교라도 어떤 전공을 선택해 지원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학생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전공이 있기 때문이다. 선호도가 높은 전공을 선택하면 그만큼 입시의 문을 통과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대입 컨설팅 전문기관 'Admission masters' ([theadmissionmasters.com](http://theadmissionmasters.com))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는 한 학생의 예를 들어 전공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서부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올리비아는 고교 시절 대부분 AP 수업을 들으며 거의 완벽에 가까운 GPA를 획득했고, SAT 점수도 1600점 만점에 1530점으로 뛰어났다. 그런데 올리비아는 인디애나주의 퍼듀대학과 일리노이주립대 어바나 샌페인(UIUC)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두 대학의 전반적인 신입생 합격률은 60% 이상이다. 그러나 올리비아는 각각 서부와 동부의 사립 대학인 USC와 NYU로부터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두 대학의 전반적인 합격률은 13% 미만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합격률이 더 낮은 대학에는 합격하고, 합격률이 더 높은 대학으로부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을까?

올리비아가 써낸 컴퓨터 사이언스(CS)는 현재 미국에서 학생들 간 가장 경쟁이 치열한 전공이다. 엔지니어링이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고, 비즈니스도 인기 전공이다.

전문가들은 전공 선택이 대학 합격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학생과 학부 모두 어느 전공분야가 경쟁이 더 치열한지 자각하고 있지만, 최근 4~8년 사이에 갈수록 지원자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원할 대학의 리스트를 정할 때 학생들은 보통 대학의 전반적인 합격률, 합격자들의 중간 표준 시험 점수, 그리고 학년 석차와 GPA 등 다른 통계자료를 참고한다. 대체로 이를 통계는 학생이 특정 대학에 대해 자신의 합격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 같은 통계에 근거해서 합격자 또는 등록한 학생들의 평균이 나의 아카데믹 프로파일과 유사하다면, 그 대학에 대한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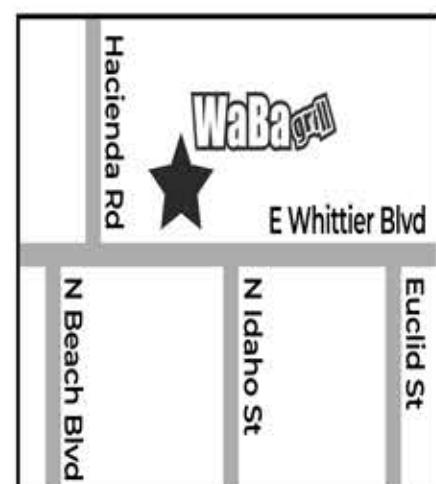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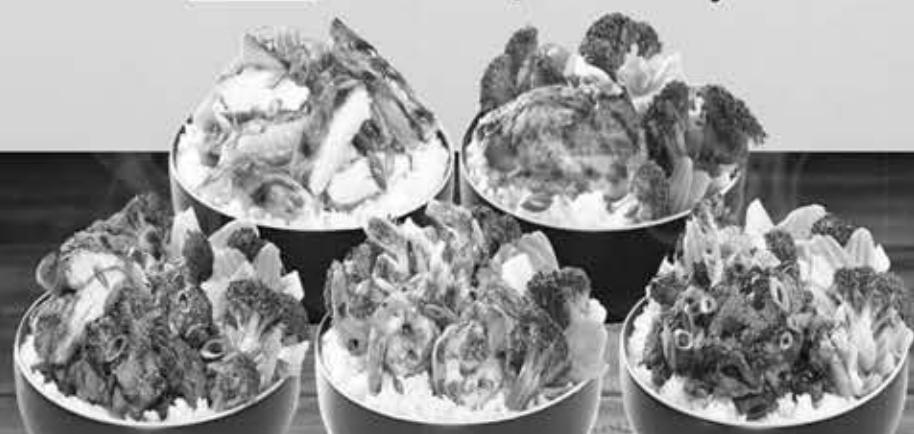
그러나 이때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합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츠버그의 명문 사립 카네기멜론대학(CMU)을 살펴보자. 카네기 멜론이 2024년 졸업 예정으로 입학한 '클래스 오브 2024' 신입생들의 데이터를 산출한 것에 따르면 컴퓨터 사이언스 스쿨에 지원한 8,329명의 학생 중 단지 7%만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들의 중간 SAT 점수는 만점에 가까운 1,570~1,600점, 언웨이티드 GPA(UW GPA) 평균은 3.95였다. 이 대학의 휴먼리스터 사이언스 칼리지 지원자들 중간 SAT 점수는 1,530~1,570점에 달했고, 평균 UW GPA는 3.87인 것으로 나타났다.

UIUC는 최근 칼리지 오브 에듀케이션(College of Education) 신입생의 경우 중간SAT 점수는 1,160~1,350점, 평균 UW GPA는 3.36~3.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의 칼리지 오브 엔지니어링은 같은 항목을 비교했을 때 중간 SAT 점수는 1,440~1,540점, 평균 GPA는 3.75~4.0인 것으로 조사됐다. 칼리지 오브 비즈니스의 경우 중간 SAT 점수는 1,360~1,480점, 평균 UW GPA는 3.61~3.95인 것으로 나타났다.

**WaBa grill**  
La Habra Eat Smart, Be Healthy!



562.266.0011

<https://order.wabagrill.com/store/5966>  
1351 W. Whittier Blvd. La Habra, CA 90631